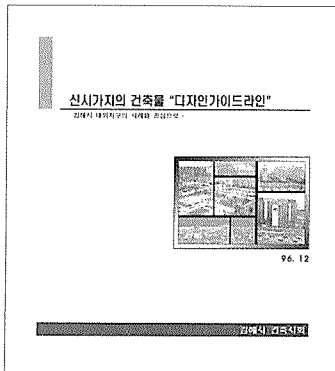


로 200여 회원들의 또하나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건축사회 「신시가지-디자인 가이드라인」 발간

김해시 내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해시건축사회는 미래 김해시를 환경친화적 매력을 지닌 도시로 가꾸기 위해 「신시가지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 - 김해시의 내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명으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서는 김해내외지구라는 장소특정적 상황과 개발진행중이라는 현실적 여건에 밀착해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병행하고 있어 일반 신시가지 계획에 좋은 참조가 되고 있다. 김해시건축사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내외지구 상업지역의 가로망체계 및 도로구조의 개선, 내외지구 건축지침의 개정 및 관련 조례의 탄력 운용,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경관조례의 법제화, 도시디자인 전문가의 양성 등을 건의하고 있다.



건축계소식 news wide

건축역사학회, '97한·일 민가 심포지움 개최

'마을의 민가구성원리'에 대한 학술발표 및 토론 열려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박언곤)는 3월 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일 민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마을의 민가구성원리'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민가의 구성원리, 현존 마을의 민가구성 사례, 일본 丹波지방의 민가 등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및 종합토론이 열려 임충신(마산대), 박명덕(동양공전), 전봉희(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일본측에서 永井規男(關西大), 福井宇洋(福井大) 교수 등이 강연과 발표를 했다.

문의 : 박명덕 교수 (02-610-180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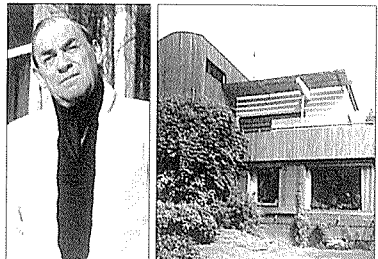
조형예술과 등 4개과 3월 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이 오는 3월 석관동 교사에서 개원한다. 조형예술과와 디자인과, 공간연출과, 미술이론과 등 4개과에 80명정원(97년 입시에서 60명을 선발)의 규모로 개원될 예정인 미술원은 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수가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정된 교수 중에는 동국대 예술대학장을 지낸 오경환 교수가 미술원장에, 민현식(건축설계), 김봉렬(건축-이론) 교수가 공간연출과에, 전수천(평면조형), 윤동구(입체조형-설치), 안규철((입체조형-조소),

이주용(매체조형), 배준환(공예) 교수가 조형예술과에, 강태희(미술이론과) 교수가 미술이론과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 알토 작품전 개최

작품전시 및 강연 등 알바알토 건축세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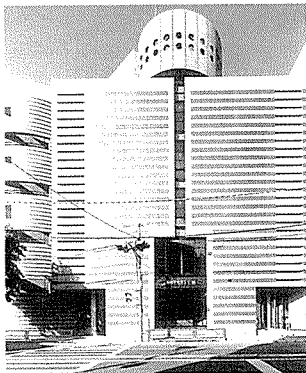
알바알토(1898-1976)와 그의 대표작 마이리아 빌라

핀란드 건축가 휴고 알바 헨리 알토(1898-1976) 작품전시회가 지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알바알토의 작품세계와 가구'란 주제로 문예진흥원과 주한 핀란드대사관, 알바알토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알바알토의 대표작인 Panamio Sanatorium을 비롯해 그의 설계도와 모형, 사진 등이 전시돼 그의 작품세계와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전시 첫날인 5일에는 핀란드 알바알토 박물관장인 Markku Lahti씨와 최동규(서인건축), 최병훈(홍익대 교수)씨 등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를 펼쳐 알바알토의 건축세계와 생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핀란드 현대건축을 조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마리오 보타 건축전 열려

대표작 「아트 갤러리」 등 22작품 전시돼

스위스를 주무대로 활동중인 스페인 태생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작품전시회가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한남동 로튼다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경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 주로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돼 마리오 보타의 작품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리오 보타는 현재 삼성그룹이 추진중인 복합문화공간 중 세라믹 박물관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타리움 갤러리, 일본(1985~1990)

건축동인 모임 「용마루」, 중국 도시탐사 기행

세계 각 도시 기행내용을 담은 「용마루 6집」 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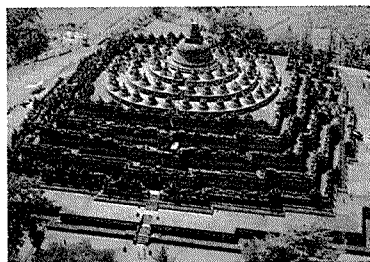
건축동인 모임「용마루」가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중국내 주요 도시와 건축물들을 답사하는 도시탐사 기행을 다녀왔다. '도시탐색 - 이 시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반추'란 주제하에 그동안 일본, 홍콩, 유럽지역의 여러 도

시들을 탐색하며 진행해 왔던 해외 도시 기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중국기행에는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기행 목적지는 상해, 항주, 소주, 계림 등 중국내 주요 도시들이 대상이었다. 한편 용마루 모임은 이번 기행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해 온 세계 각국 도시들에 대한 건축기행내용들을 정리해 올 해안에 용마루 6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길회, 인도네시아 건축기행

주요 종교사원 석조건축물 등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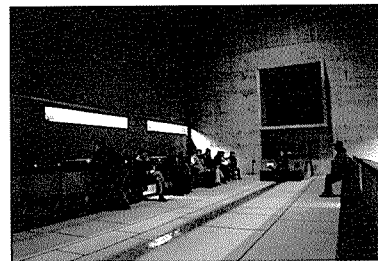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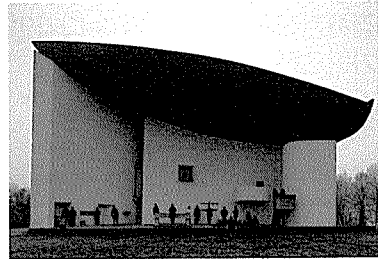
건축인 모임인 한길회(회장 윤석우)가 건축탐구를 위한 연례행사의 하나로 지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해외 건축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기행은 보로부드르(Borobudur) 불교사원과 탐박실링(Tampak Siring) 힌두사원 등 인도네시아내 불교·힌두교 문화권 지역이 답사코스였으며 기행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일찍이 인도로부터 전파된 석조건축물을 일목요연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길회 회원들은 이들 사원의외도 기원전 7~10세기 무렵에 중앙자카르타 지역에 건립된 프람바난(Prambanan)의 Lero Jongrang Complex와 중앙자카르타로부터 전파되어 변형되어진 발리의 탐박실링(Tampak Siring) 힌두사원, 고아가자(Goa Gajah) 코끼리 동굴사원, 때만아이운(Taman Ayan) 사원 등을 답사하였다고 한다.



보로부드르 불교사원 전경

아рки움 건축 답사기행

'르 꼬르뷔제의 확인' 주제로 사무소원 등 16명 참가



(주)건축사사무소 아рки움(대표 김인철)은 지난달 설날을 전후해 10일동안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건축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건축기행은 '르 꼬르뷔제의 확인'이란 여행주제가 말해주듯이 스위스 취리히를 기점으로 리옹과 마르세이유를 거쳐 파리에 이르는 일정동안 르 꼬르뷔제의 작품세계와 그의 생각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 기행에는 사무소 직원외에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건축주와 시공자, 실습생 등 모두 16명이 참가했다. 특히 사무소원들은 여행에 앞서 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의 특강을 통해 철저한 사전 답사준비를 한 후 룡상언덕, 라뚜렛 등 르 꼬르뷔제의 자취를 직접 둘러보았으며 또한 여행중에도 각자의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英 World Architecture誌, 삼우설계 특집게재

200여 페이지에 걸쳐 커버스토리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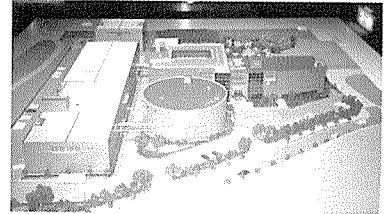
삼우설계(대표 김창수)가 영국의 유력잡지인 World Architecture誌에 커버스토리로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 유명잡지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한 기사를 실은 경우는 흔히 있었으나 삼우설계의 경우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 커버스토리 특집으로 다룬 예는 흔치 않아 삼우측으로서는 이를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고 있다. 삼우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W.A誌로부터 특집지면 배당을 통보받은 이후 12월말경 영국의 건축평론가 Timothy Ostier가 1주일간 삼우를 방문하여 준공 프로젝트, 설계진행과정 등을 취재하고 인터뷰 등을 벌였다고 한다. W.A誌지는 이번 특집에서 서울에서 느낀 평론가의 활기찬 인상과 한국건축문화의 특색, 삼우의 간략한 역사를 다루고 디자인과 연구개발에 관한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연수원, 오피스 빌딩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도전할 문제와 해결책들을 다루었다. 한편 삼우가 소개된 World Architecture Profile란은 W.A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특집란으로 지금까지 이 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설계사무소는 HOK, Norman Foster, NBBJ 등 50여개 사(社)이다.



주거학연구회, 일본주택계 방문

일본 주생활전반의 전시장 견학

박연심(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장원건축) 회원을 비롯해 각 대학의 주생활학과 교수들이 주축이된 주거학연구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일본주택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연구회측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거품경제이후의 경기침체로 주택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자체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주로 주부 및 노년층을 겨냥해 다양한 홍보물을 발행, 배포하는 등 직접 판매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잠재고객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전국 곳곳에 주택 전시장 및 주생활 체험관, 주택실험실이 민관 양측에 의해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일본 방문기간 중 견



大和하우스 건물의 모형전도 (앞의 동근 부분이 주택역사관 및 회의장)



USK프라자 건물 전경



大和하우스 주택역사관 내부

학한 주생활 전반의 전시장 리스트이며 연구회 측은 다음 기회에 견학내용들을 사진 등 화보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명	시설내용	건립주체	위치
OZONE LIVING DESIGN CENTER	living information, life style lab, shop, show room, event & academy	東京 GAS	石新宿 3-7-1, 東京
宇都宮 CODI-NATER PLAZA	건축자재회사로서 reform, refresh 공사 희망자 (end-user)에게 직접조언, 자료제공. home theater, computer simulation	大建工業	西新宿 7-5-25, 東京
USK PLAZA 21	지역수용자 대상 USK 기술 및 경영방팀 홍보, 21세기형 주거개발 제안	USK	竹林町1063-3, 宇都宮
住宅都市試驗研究所	미래주택연구, 실험연구시설(조명, 음향) 실험주택(you make 주택, 태양열 이용, 제택근구, 노인주택)	住宅都市整備公園 HVD	石川町 2683-3, 八王子
NATIONAL LIVING PLAZA	주생활에 관련된 제품홍보 실물사용 test, AV living room, home theater	NATIONAL	新橋6-17-15 National Halls관1F, 東京
大京 ELSA관	주택건설업체 大京에서 판매하는 전국의 주택정보제공	大京建設	新宿 6-17-15, 東京
NHK TUDIO PARK	welcome, wonder, history, open, media, town등 각종 studio를 구성하고 있다	NHK	港谷區, 神南 2-2-1, 東京
積水 HOUSE 종합 주택연구소(納得工房)	각종 공간 및 노약자 장애인의 실제적인 시설체험,	積水HOUSE	木津町 興台, 京都 0774-73-1121
大和하우스	주택성능실험실, 실험실의 고객들의 관람공간, 건축자재 전시, 주택 역사관	大和하우스 工業	京都
HOUSE QUARE	주택정보 교류거점 건설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정보의 one stop제공 28개의 住宅展示場, 도서관	요코하마시 건설성주택국 및 민간단체	中川町, 横浜
野村 LIVING CORE	노무라주택홍보, 고객상담 Coordinate room-13개소	野村주택	横浜
大版 GAS SHOW ROOM	각종주택실험: 실습, 체험	大版 GAS	大版

「'97건축가협회상」발표, 시상

건축문화사옥 등 7점 수상

제19회 건축가협회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1월 24일 올해 건축가협회상 수상작으로 건축문화사옥 등 7점을 선정하고 지난달 18일 오후 3시 문예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들은 총 심사대상 작품 2백20점 가운데 예비심사에 통과한 22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벌여 그 결과 최종심사에서 선정된 것이다. 심사는 김정식(심사위원장, 까치건축), 박길룡(국민대 교수), 오기수(스페이스·오), 윤석우(종합건축), 조구현(신세대건축)씨 등이 맡아 했다. 건축가협회는 또한 '97특별상 가운데 초평상 수상자로 고장세양 공간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가 설계한 경기도립박물관에 아천상을 수여했다. 또 엄덕문상은 삼성정밀화학복지관을 설계한 박 승(삼우설계)씨가 수상했다.

- '97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명단 (작품명/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순)
- 건축문화사옥 /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 산업도서 출판공사 / (주) 대민종합건설
- 부산방송국 리노베이션 / 이성관(한울건축) / 부산방송(주) / (주) 국제종합토건
- 삼보컴퓨터 사옥 / 정림건축 / (주)삼보컴퓨터 / LG건설(주)
- 신도리코아산공장 본관 / 민현식(기오현건축) / (주)신도리코 / 두산건설(주)
- 신정동 여성의원 / 최관영+정동명(일건씨엔씨 건축) / 이재춘 / (주)삼협특건
- 용문청소년수련장 / 김영섭(건축문화)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한울종합건설(주)
- 휘닉스파크 콘도미니엄 / 유건(시·상건축) / (주)보광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건축분야 정보전산화 동향 워크숍

3월 28일 건축학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CAD분과위원회는 오는 3월 28일 대한건축학회 대강당에서 CAD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분야의 정보전산화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분야의 정보전산화 개념과 정보전산화 툴과 환경(CALS, VR, PDM, FM, GLS)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된다.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

제6회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신청자중 자격심사 거쳐 우수자에 경비 지급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제공코자 자격심사를 거쳐 우수자를 선발, 미화 1만달러의 해외여행 장학금을 수여한다. 수령자는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의 목적지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40세미만으로 2년제 전문학교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현재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이전에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된다.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포트폴리오 심사 후 예선자 3~5명 선정
- 접수마감 : 1997년 4월 30일
-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접수처
- 주소 : Tai Soo Kim Partners 285 Farmington Avenue, Hartford, CT06 105

U.S.A

전화 : 860-547-197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0-1

(주)TSK건축사사무소

전화 : (02)588-2703~5

「국립네덜란드 빌딩」 96년 최고 디자인 작품

美 시사주간 TIME지 선정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뽑은 96년의 최우수 디자인 건축물에 체코 프라하에 세워진 '찌그러진 건물'이 선정됐다. 이 건물은 캐나다 태생의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와 크로아티아 태생의 블라디미르 밀루니치가 설계해 지난 96년 5월에 완공된 작품이다. 네덜란드 보험회사의 의뢰로 설계된 이 건물은 왼쪽부분을 찌그러진 원통형태로, 오른쪽 부분은 정상적인 모양으로 처리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찌그러진 원통형태의 타워는 외벽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며 앞에 위치한 몰다우강의 풍경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다. 3차원 컴퓨터작업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이 건물은 중세 시대의 오래된 건축물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건축박물관' 프라하에서 현대건축예술을 대표하는 건물로 남게 됐다.



국립네덜란드 빌딩 모형

'97서울 리빙디자인 페어

KOEX에서 3. 21~25일까지

디자인 하우스와 KOEX가 공동주최하고 월간「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관하는 '97 서울 리빙디자인 페어가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홈리빙 및 인테리어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가구류 전시관을 비롯해 부엌가구류, 욕실가구 및 시설품, 인테리어 액세서리, 주택정보관 등으로 각 전시관이 마련되며 이밖에도 홈패션 및 침장류, 벽재·창호재류 등 신상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제15회 서울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태평양파크빌라트」금상 수상

건원국제건축 한현호 회원이 설계한 태평양파크빌라트가 제15회 서울시건축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시는 95~96년까지의 기간중 준공된 건축물 31점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심사를 실시해 이중 태평양파크빌라트 등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상을 수상한 태평양파크빌라트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



금상 수상작, 태평양파크빌라트

물로 한정된 토지에 저층부와 고층부를 균형있게 배치해 주변지역 어디서나 입체감 있고 개성있게 보이도록 설계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또 은상에 선정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설계자 / 간·삼건축 김자호)과 등촌동 다가구주택(설계자 / 로가후리건축 박종욱·이일훈)은 각각 주변환경과의 조화, 중간정원의 효과적 배치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동상에는 서교동 다가구주택(설계자 / 아라키움건축 김민철), 이화여대 아산공학관(설계자 / 정림건축 김정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설계자 / 삼우설계 김창수) 등 3점이, 장려상에는 불광동 여성공동의 장(간·삼건축 지순), 연세의료원 안아비인후과 의원(설계자 / 삼연건축 전형근) 등 2점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3월 6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한다.

전통공예·건축학교 개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월 5일부터 강좌 열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일반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전통공예와 전통건축 및 문화재 보수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강좌를 마련, 3월5일부터 개강한다. 강의는 1년 2학기제로 초급반과 연구반으로 나눠서 실시하며 모집과목은 초급반의 경우 입사, 한지, 화각, 단청, 표구, 채화칠기, 피혁, 민화, 불화, 자수, 매듭, 침선, 대목, 소목 등이고 연구반은 칠보, 자수, 화각, 소목, 표구, 단청불화, 피혁, 침선, 민화 등이다. 모집정원은 초급반이 과목당 15명이고 연구반은 과목당 10명씩이다.

문의 : 02-722-7734, 739-5987~8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 대상 축소

발주기관 자체심의 확대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3일 중소기업의 설계심의를 발주청에 대폭 위임하고 대규모 중요공사만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심의회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정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비가 2백억원 이상일 경우 받도록 돼있는 건교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회 앞으로는 5백억원 이상의 대상공사로 축소된다. 또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투자기관과 설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심의 없이 자체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회도 현재는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설계심의의 내실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중앙위원회의 경우 3백명에서 5백명으로, 지방위원회는 1백20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설계심의실적은 중앙위원회가 3백18건, 지방위원회는 4백64건이나 돼 인력에 비해 설계심의회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부실이 우려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교부는 밝혔다.

오토데스크 솔루션 97

국내 최대 CAD/CAM/CG/GIS기술 세미나

오토데스크코리아와 그 협력업체들이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CAD/CAM/CG/GIS 관련 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잠실 롯데월드 호텔 3층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건축·토목·엔지니어링·인테리어 설계를 비롯해 배관·플랜트 설계, 기계·금형 설계, GIS·Mapping, 인터넷·인트라넷, 도면 및 기술정보 관리 등 각 산업분야별 우수 응용 프로그램과 활용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전시회기간중에 선진기술 이론 및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성공 사례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거림시스템(주), (주)건캐드, (주)소라건축, (주)청우시스템, 한국 씨·아이·엠(주) 등 관련분야 유망 업체들이 참가했다.

제6회 USA인스티튜트 국제설계 경기

공공공간-석재의 흔적

USA 인스티튜트가 주최하는 제6회 국제건축설계공모전의 주제와 일정이 발표되었다.

1994년부터 해마다 개최돼 온 이 설계 경기는 베로나에 있는 이졸로 피아자라는 공공공간을 재정의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작에게는 베로나 시당국이 실시설계 계약금으로 5백만 이탈리아리레를, 나머지 상금에 대해서는 USA연구소와 뉴저지 공과대학

이 수여한다. 주제와 주요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 「공공공간-석재의 흔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공백이라는 이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오늘날의 건축을 할 것인가? 새로운 형식주의의 대두는 재료에 대한 지식과 실제 사용 그리고 건설의 방법과 분리된 텍토닉스에 근거한 것이다. 건설의 재료가 이념적인 취지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재, 대리석, 화강암 재를 가공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베로나에서 베로나를 위한 작품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 담론의 출발점과 필요조건으로서, 결과물로 나타난 건축의 구체성이나 재료성이 아닌 건축에서의 구체성과 재료에 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
2. 일정
- 신청마감 : 1997. 6. 10 (신청 즉시 자료우송)
- 작품마감 : 1997. 9. 5. (Federal Express나 DHL만 접수함 /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심사 : 1997. 9. 26.
- 시상 : 1997. 9. 27.
- 발표 : 1997년 10월 15일
3. 심사위원 : 리비오 디미트리우(미국), 호게 글루스버그(아르헨티나), 블라디미르 알세네(미국), 빈센조 파반(이탈리아)
4. 상금 : 1등- 미화 3,000불, 그외는 미화 20,000달러 내에서 USA 세미나에 참가할 경우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 : 24인치×36인치 규격의 용지에 수직으로 배치할 것(최고 3장까지 가능).
작품설명문 영어 250단어 이하로 할 것.
6. 참가자격 : 전문가부문은 나이제한 없으며, 학생부문은 건축 및 유사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7. 참가비 : 참가신청서와 함께 미화 150달러 납부

8. 접수확인 : 미국/001-1-212-727-2157, 한국/053-814-8443~4
9. 문의처 : 053-814-8443~4 (강병준), 02-543-6745 (김용주)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 종료

건축가협회, 문체부에 연구보고서 제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1월, 그간 진행해왔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를 마치고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건축가협회가 지난해 6월 문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해 온 것으로 6개월여 동안 건축가협회의 총괄책임 하에 건축, 도시를 비롯 박물관학, 동·식물학, 생물학, 인류학, 생태학, 광물·지질학, 고생물학, 곤충학 등 자연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말아 컨소시엄을 통한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연구위원들은 자연사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 현지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표를 파악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에는 세계 여러나라 석학들을 초빙하여 국제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가협회는 이 연구가 한국 초유의 대형 종합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개발하려는 시발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지결정단계는 물론 기본 기획 연구(프로그램)단계를 거쳐 박물관건립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